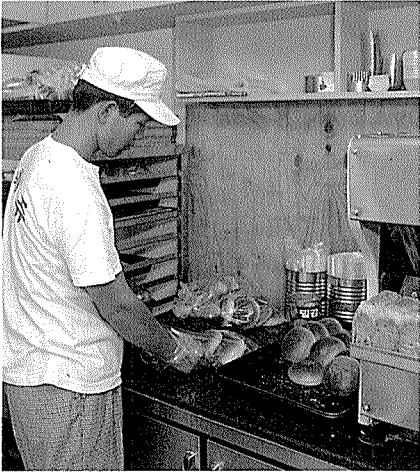


부케랑쥬 과자점



좁고 긴 매장형태 색다른 구조로 극복

• 위치 : 강남구 개포동 뉴코아 백화점내 • 면적 : 약 18평 • 인원 : 매장 3명, 공장 6명 • 개업일 : 96년 7월 • 내부마감재 : 벽, 천정/석고보드 위 우드스타코 마감, 바닥/매장 350 x 350 타일, 공장 150 x 150 크링커타일, 조명/델타 스포트 할로겐, U램프 매입등, 사인/EVC스카시, 코너사인 • 외부마감재 : 사인/파나플렉스, 네온잔널, EVC스카시, 조명/메탈라이트, 브라켓/I, 외장재/갈바스틸위 락카 투톤칼라 마감, 후레임위 우드쉬트 휘부, 어닝/지정수입천 유럽형 어닝



- ◀ 부케랑쥬의 매장전경. 좁고 긴 매장 형태를 입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마련한 매장은 백화점 입구와 연결되어 있어 손쉽게 고객이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벽면형 쇼케이스를 배치했고 그자와 일자 디스플레이대를 두어 아슬아슬한 매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 ▼ 바깥쪽에 배치한 평대쇼케이스와 빵디스플레이대, 올리브 그린톤의 원목과 밝은 벽돌색 타일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친근감을 준다.
- ▼▼ 매장에서 바라본 길게 형성된 공장전경. 전면에서 볼 때 3분의 2 정도를 공장으로 부케랑쥬는 매장 입구쪽에 컨베이션트와 작업대를 두어 가능한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배치를 실현하고 있다.
- ▲ 외부와 접해 있는 출입구에는 카운터와 바로 옆에는 작업대를 두어 제품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기능과 고객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다.
- ◀ 대형 은행간판으로 인해 시각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부케랑쥬는 별도의 사인탑 간판을 빈 공간에 부착하고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유럽형 타원 어닝을 설치해 극복했다. 특히 산뜻하고 깔끔한 부드러운 톤의 감쪽한 천사마크는 지역 주민에게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의 여유면적으로 파라솔 3세트를 전진 배치하여 야외 좌석판매와 유동고객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네!**

대청역 주변의 개포동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부케랑쥬는 뉴코아 일원점 1층의 대로변에 위치하며 뉴코아 주차장을 끼고 있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초·중·고교 맞은편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나 인적조건으로나 매우 전망이 밝은 상권에 속한다.

주변 아파트 단지 요소요소에 즉석식 베이커리가 산재해 있지만 상권 장악이 기정화돼 있고, 작지만 백화점 나름대로의 유동인구를 집중공략하며 근거리 아파트단지와 주택지 인구를 모아주는 길목에 위치한 관계로 전략적 판매를 가능케 하고 있다.

부케랑쥬는 매장으로서는 단점이 많은 구조이나 전혀 색다른 구조로 전개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구매시각과 광고시점을 좋게 개선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이다.

매장 형태가 좁고 전면이 긴 이곳은 전면에서 보아 3분의 2정도를 공장시설로 전개하고 좌측 백화점 입구 쪽은 매장으로 배치하였다.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벽면형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가능한 신선한 제품을 고객에게 눈앞에서 보여주고 구매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배치가 살아 움직이는 점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케랑쥬는 디프그린의 바다 녹색이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내부는 올리브 그린톤의 원목과 밝은 벽돌색 타일이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친근감을 주는 공간을 실현하고 있다.

외부 대형 은행간판으로 인해 많은 시각적인 어려움을 지닌 부케랑쥬는 별도의 사인탑 간판을 빈 공간에 부착하고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유럽형 타원 어닝을 설치해 극복했다. 특히 산뜻하고 깔끔한 부드러운 톤의 감쪽한 천사마크는 지역 주민에게 매우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외부의 여유면적으로 파라솔 3세트를 전진 배치하여 야외 좌석판매와 유동고객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네!**

